

RaonAtti



RaonAtti 10th in Pangasinan
12월 보고서
김보경, 김연, 박진경, 선다희, 우민아

목차

라온아띠 Project-Brgy.Pugaro/Dumpsite

Annual Corporate Meeting

Happy Merry Christmas!

가족 사진 Project

Dagupan City를 마무리하며...

아띠, 말라시키로 이사가다

단원 별 Project, 홈스테이 in Brgy.Canan sur, Malasiqui

2013 December

12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보고서 작성 - 개인시간 - 아띠미팅	2 - 푸가로 - 보고서 작성 - 아띠미팅	3 - 덤프 사이트 - 보고서 작성 - 아띠미팅	4 - DCNH 방문 - 보고서 작성 - 아띠미팅	5 - 보고서 작성 - 아띠미팅	6 - 덤프 사이트 - 아띠미팅	7 - anniversary annual meeting
8 - 개인시간	9 - 푸가로 - 아띠미팅	10 - 덤프사이트 - 푸가로 책상 페인팅 - English class with Marvin	11 - 푸가로 책상 설치 - 푸가로 X-mas 이벤트 미팅	12 - 덤프사이트 - Meeting with Kuya Teks - 푸가로 X-mas 이벤트 준비	13 - 푸가로 X-mas 이벤트 - 팡Y X-mas Party	14 - 개인시간
15 - 개인시간	16 - 푸가로 못간 날 - 아띠미팅	17 - 덤프사이트 - Meeting with Kuya Jimmy Marvin Alen	18 - Visa extension - 아띠미팅 - 덤프사이트 X-mas 준비	19 - 푸가로 마을 탐방 - 덤프사이트 X-mas 준비	20 - 덤프사이트 마지막 클라쎄 - 덤프사이트 X-mas 준비	21 - 덤프사이트 X-mas 이벤트
22 - 말라시키로 이사	23 - Host Family 배정	24	25	26	27	28
Canan Sur, Malasiqui						
29 - Antong Falls 야유회 with YMCA	30	31				
Homestay						

• 2014

1

Jan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신명 / 12.1

2

3 부역의 날

4

5 소한

6

- 데이케어 시작

7

8

9

10

11

12

13

14

15 12.15

16

17

18

Ilocos Norte

19

20 대관

21

22

23

24

25

여행

26

27

28

29

- 다구판으로 이동

30

31 1월 / 1.1

다구판

라운아띠 Project
Brgy. Pugaro

12월 활동내용

BRGY Daycare Atti Klase / 12일 Atti Klase 마무리 / Daycare 책상 보수 / 13일 크리스마스 파티 / 19일 마을 한바퀴

12월은 Daycare Atti Klase 마무리, 환경미화를 위한 책상 페인트칠, 크리스마스 이벤트 참여, 마을 알아보기 활동을 하였다. 12월 중순에 데이케어가 방학을 해서 그 전까지 Atti Klase는 2번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했다. Klase 내용은 종이접기와 그림 그리기 등이었다. 중간평가 이후로 갈팡질팡하던 데이케어의 수업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되어서 Klase를 마무리 하는데 더욱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Daycare 책상 페인트칠 및 보수는 선생님께서 먼저 Y에 데이케어 책상이 너무 낡았다며 도움을 요청하셔서 진행하게 되었다. 책상으로 쓸 나무판자를 새로 구입하여 페인트칠을 한 후 책상 다리도 더욱 튼튼하게 다시 못질하였다. 13일에는 Daycare에서 여는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라온아띠도 몇 가지의 게임을 준비하여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두 달 동안 함께했던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을 모아 선물하였다.



* 푸가로 한바퀴

12월 13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지막으로 Pugaro섬 Daycare Center가 방학에 들어가면서 RaonAtti는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Pugaro 섬 더 알기'를 할 작은 기회를 가졌다. Pugaro 활동 마지막 방문이었던 12월 19일 마을 청년의 안내로 처음으로 Pugaro섬을 한 바퀴 돌았다. 그 전까지는 섬에 도착해 Day Care, 바랑가이 홀 등이 있는 곳으로 가고, 그 곳에서 활동한 후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Pugaro 전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Bonuan와 가까이 닿은 섬의 오른쪽 끝, Barangay Suit과 붙어있는 왼쪽 끝, 주로 다니던 길이 아닌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대략의 지형을 이해하고 새로운 얼굴들도 만났다. Daycare 아이들의 집을 마주치기도 했다.

2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며, 3월에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 올 것이고 우리는 1월 말에 작별하러 다시 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물로 돌아갔다.

라운아띠 Project-Dumpsite

1. 아띠클라씨



11월 중간 평가에서 아띠들과 간사님들, 평가시난 YMCA Staff들과 덤프사이트 아띠 클라씨에 대해 관계형성은 충분히 되었으니 이제 연령별로 맞춤 교육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나눔 후 그동안 연령 제한 없이 이루어졌던 하나의 클라씨를 두 그룹으로 분리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진경과 보경 단원이 3~7세 아동들에게 영어로 알파벳, 모양, 색깔, 숫자를 가르치는 A반을, 연과 다희 단원이 8~12세 아동들에게 기초 영어를 가르치는 B반을 맡아 진행하였다.

또한 불규칙하였던 수업 요일과 시간도 화요일, 금요일 오전 9:00-12:00로 확정하였다. 보통 3세-5세는 데이케어 센터를, 6세부터는 초등학교를 가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데 학교에 갈 차비가 없거나 빨래, 쓰레기 줍기 등 집안 살림을 보태기 위해 집에 남는다. 몇몇 아이들은 단순히 학교 가는 게 귀찮아서 안가기도 한다. 그래서 아띠들은 평소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두어 데이케어와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 및 흥미유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를 정기적으로 가게 하고자 블루하우스에서 상처치료가 끝난 후 A반은 블루하우스에서, B반은 니파헛(오두막)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Klasse A-by Jun, Aurora

따갈로그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배우고 글자 체계를 알파벳으로 쓰는 필리핀에서 영어는 중요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서 배우는 팡가시 난세(팡가시난 지역 언어)와 따갈로그어는 말 할 줄은 알지만 쓰질 못하였고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영어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A반은 플래쉬 카드를 이용하여 '알파벳 읽고 쓰기'를 기초로 숫자, 모양, 색깔을 영어로 익히는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연령대는 처음 A반 아이들의 나이는 3-6세 까지였으나 대부분의 7세 아이들이 알파벳, 숫자세기 등을 어려워하여 7세 까지 A반으로 포함시켰고, B반 아이들 중 8세 이상이지만 기초가 필요한 아이들 또한 A반으로 들어와 함께 수업을 하였다. 첫 날 교육 전 Jeremy(YMCA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따갈로그어 설명을 통해 아이들의 이름, 나이, 건강상태, 학교 다니는지의 여부 등 기본 자료들을 조사 후 아이들 5명을 시작으로 첫 교육을 함께 진행하였다.



수업 내용

플래쉬 카드 수업(20분) + 게임형식의 복습(20분) 총 40분 수업 후 스낵 나눠 먹기로 수업이 진행 되었으며 질서교육도 병행!

알파벳(A,B,C,D,E), 숫자(1,2,3,4,5), 모양(Circle●, Square■, Triangle▲, Star★, Heart♥), 색깔(Red, Yellow, Green, Blue, Black)을 매 수업마다 새로운 플래쉬카드 5장과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닌 조금씩 다양한 주제를 통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만 하면 지루해 할 수 있어 중간중간 아이들에게 방금 배웠던 것들을 물어보며 맞추면 하이파이브와 Magaling!(잘한다!)의 당근을 주어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첫 수업에서 따갈로그의 위력을 보고 그 다음 수업부터 그 날의 수업 내용을 따갈로그어로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설명하여 직접 소통하고자 하였다.(진경과 보경 단원은 따갈로그어로 수업 설명 후 아이들의 알아들었다는 Opo(네) 대답을 들으면 희열을 느끼곤 했다^^)

복습의 진화

술래잡기-줄세워서 말하기-글씨보기

첫 수업 후 술래잡기를 통한 복습을 진행 하였는데 오늘 배운 플래쉬 카드를 들고 아띠들이 술래가 되어 아이들에게 잡히면 플래쉬 카드를 보여주고 발음을 따라하게 하였다. 아이들이 곧잘 따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두명씩 넘어지기 시작하였고 상처치료가 끝난 아이들이 다시 다칠 수 있어 좋은 복습 방식이 아닌 것 같다는 YMCA 봉사자의 피드백을 받고 복습형식을 바꾸기로 하였다.

그래서 생각해 낸 복습으로 줄세워서 말하기!

스피드 게임처럼 한 줄로 아이들을 세워 한명씩 오늘 배운 플래쉬카드를 보여 준 뒤 맞추면 통과! 틀리면 다시 뒤로 돌아가기!로 질서 교육과 함께 복습을 하고자 했으나 통과한 친구들이 심심해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복습을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글씨보기

소리로 읽는 것 뿐만 아니라 글을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도화지에 점선으로 미리 알파벳과 숫자를 써놓고 아이들에게 색연필 or 연필을 주어 점선을 따라 아이들이 쓰고 있는 것의 발음을 들려주며 말하며 글을 쓸 수 있게 하였다. 완성된 도화지는 아이들의 이름을 쓴 뒤 가위로 잘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집에 가서도 복습할 수 있게 하였다.



라온아띠 Project-Dumpsite
4.간식 나눔

일시 : 2013년 12월 7일 3시.

장소 : YMCA Phase 2 building

라운아띠가 활동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YMCA에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행사가 있었으니 바로 Annual Corporate Meeting이다. 이 행사는 매년 말 한 해를 정리하는 행사로써 YMCA 이사진, 평생회원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본 단체의 연중 사업 보고, 예/결산 내역 보고를 듣고 심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행사 당일, YMCA는 아침부터 행사 안내자료 준비와 간식 준비로 분주했다. 모든 직원들이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YMCA 뒷편에 있는 Phase 2 building은 수많은 의자들과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다.

2시부터 이사들과 회원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고, 대부분이 모였을 3시 즈음 사회자의 인사와 함께 Annual Corporate Meeting의 막이 올랐다. 여는 기도문, 축하공연(YMCA Academic Olympics 지역대회 노래부문 우승팀) 등이 이어졌다. 이후 2013년 YMCA 회원 현황 보고, 한 해 동안 있었던 각종 사업 보고, 예/결산 보고 등이 있었다. 연중 사업 보고에는 평가시난 YMCA가 처음 맞이한 라운아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본 행사에도 참석한 라운아띠 단원들과 함께 비중있게 소개되었다.



이 행사는 YMCA의 일방적 발표로 끝나지 않았다. YMCA 회원들에게도 발표 내용 중 의문이 남는 것에 대해 질문할 발언권이 주어졌고, 몇몇 회원들은 YMCA 사업 내용과 사업비 운용 내역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본 행사는 막을 내렸다. 행사가 끝난 뒤 회원들은 준비된 간식과 음료수와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모처럼 만난 김에 사진도 찍으며 늦은 저녁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운아띠에게는 평가시난 YMCA의 지역 주요 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이기도 했다.

Happy Merry Christmas in Pugaro



* Christmas Party in Daycare

필리핀의 모든 학교들이 방학을 맞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Pugaro Daycare Center도 방학을 맞았다. 12월 13일 Daycare의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라온아띠도 신나는 게임과 작은 선물을 준비해 함께 했다.

날이 더운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게임으로 물풍선 터뜨리기를 준비하였는데 이벤트 전날 아띠들은 물풍선과 압정을 박은 라켓으로 온 몸이 젖어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미를 확신했고 이벤트 당일 물풍선 터뜨리기 게임은 대성공이었다^^

필리핀의 모든 학교들이 방학을 맞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Pugaro Daycare Center도 방학을 맞았다. 12월 13일 Daycare의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라온아띠도 신나는 게임과 작은 선물을 준비해 함께 했다.

낮을 가리고 내성적이었던 아이들, 우리를 냉정히? 관찰하던 엄마들 그것이 우리가 만난 첫 Pugaro Daycare 였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며 아이들, 엄마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함께 놀았다. 그 속에서 라온아띠는 깨달았다, 어느덧 우리 이렇게 또 친구가 되어있구나! 이제 우리에게 장난을 치고 안겨오는 아이들, 이제 서로를 익히고 마음을 연 Daycare 엄마들.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가 마지막 일정이라는 것이 안타까웠다.



Dumpsite 가족사진 Project

우리 팀이 Dumpsite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지역 사회에 전하기로 결정한 후로 카메라를 가져가 덤프와 주거지역, 그리고 사람들을 조금씩 담기 시작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촬영하는 것을 싫어하지나 않을까 조심스러웠는데 모두 카메라를 향해 웃고 같이 사진찍기를 청하고 때로는 사진을 뽑아줄 수 있냐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그 때 언젠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잘 담아 선물해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빨리 흘러 어느덧 활동의 마무리가 다가왔다.

Dumpsite Christmas Event를 다루는 회의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 선물하자는 의견이 공감이 되었고, 안양 YMCA에서 우리팀 출발 전 모아주셨던 '십시일반 Project' 기금으로 사진 인화와 액자구매 비용을 쓰기로 했다. 손씻기와 상처치료 후 팀원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주로 마을 Survey등 이야기와 가족 Data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 덕에 촬영 준비는 수월했다. 모든 가족이 촬영을하기로 했고 어느 한 날에 모든 가족이 촬영을 준비하기로 했다.



가족사진 Project-by Min Ah

촬영 당일 Y Volunteer 친구들이 통역을 도와주었고 내가 참여하던 Dagupan City National High School의 Media Art 전공 수업의 학생 Marijel도 촬영에 함께 했다.



12월 14일 일기 중

...(전략) 오늘 쓰레기산 마을 사람들의 가족 사진을 찍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액자를 사 집집마다 사진을 걸기로 했다. 여자들은 립스틱을 바르고 나를 기다리기도 하고 매일 옷을 벗고 일 하던 꾸아도 오늘은 말끔하게.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더 해가 지기 시작했다. 내일부터 딸이 이 마을에 없다면 없는 빛을 모아 사진을 찍도록 하는 어린 아빠, 해가 지면서 다음 가족들 사진이 어두워 질수록 미안하고 속이 상했다. 항시대기, 24시간 트럭이 들어올 때마다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내일 다시 찍으러 오는 것으로 약속해도 오늘 설레며 준비를 하고 시간을 낼 마음들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는데도 미안한 마음이 되었다. 그 덕에 시간 지키는 일 거의 없는 필리핀에서 외려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절실히 스스로 약속하게 된 신기한 일이다.



다들 너무 즐거운 얼굴이었는데도 그래서 더욱 절절히 배운 것이 많다. 소박한 가족 사진 하나가 이 가족들에게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기에 더욱 마음 써 좋은 사진들을 남겨 주어야지 한다. 일주일 두세번 반나절씩 가는 내가 얼마나 알겠냐만 오늘은 정말이지 마을에 새로운 분위기가 도는 것 같았다. 늘 일하느라 없던 가족도 비로소 만나게 되고, 오늘은 도구를 놓고 말끔한 모습으로 일터보다 집 주변에 모여 머물며



즐거워 하는 모습도. 오늘 촬영을 하며 마을 가족들이 신나하고 즐거워했기에 오히려 내가 배운 것들, 이 가족 사진의 가치, 모처럼 아이들보다 즐거워 했던 어른들의 표정과 그들의 이야기도 오늘 밤새 마음에 곁에 머물 것이다.

가족사진 Project

이 후 몇번의 보충 촬영을 해 모든 가족의 사진을 담았고 12월 21일 Christmas 행사에서 작은 사진 전시를 하고 나누어 드렸다. 사진으로도, 자리로도 그곳에 살고있는 거의 모든 얼굴이 한 곳에 모인 날이었다. 예쁜 액자에 들어간 가족사진을 보며 너무너무 즐거워 하는 모습에 우리도 너무 즐거웠다.



가족사진 Project



아띠, 말라시키로 이사가다.



Canan Sur 생활



라온아띠가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생활한 마을 Canan Sur 는 Pangasinan 주 의 Municipality 중 Malasiqui 안에 있는 바랑가이이다.

YMCA of Pangasinan과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연이 있는 마을이다. 지금 마을 청년들이나 젊은 부모들이 어렸을 적이었던 일본 Saitama Y의 Workcamp나 마을 Daycare Center 설립 등 YMCA의 크고 작은 커뮤니티 사업이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 온 곳이다. Pang Y 총장님이 청년 시절에 라온아띠처럼 홈스테이를 하며 멋진 경험을 얻었던 곳이기도 하다.

바랑가이 Canan Sur는 농경 지역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농사를 짓는다. 망고가 많이 나기도 한다. 소와 염소, 닭, 강아지, 고양이들이 거닐고 주민들이 벽없이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마을이다. 고도가 약간 높은 지대에 있어 다른 곳 보다 조금 더 시원해 더욱 살기 좋은 곳이다.

라온아띠는 단원 한 사람씩 다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마을 일을 맡아 하며 지낸다. 한의학을 공부하는 Alex는 Parent's Club을 만나고, 아이들을 잘 다루는 Aurora는 Daycare 보조교사, 영양학을 공부하는 Dainey는 Daycare 영양사, 농가의 자녀인 Jun은 호스트 가족의 Farming을 보조하며 영화와 사진을 공부하는 Min-Ah는 고등학교에서 Journalism 수업을 운영한다.

A young woman with dark hair, wearing a dark blue and white long-sleeved shirt and black pants, is kneeling on a wooden floor. She is smiling a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while holding a yellow-handled paintbrush. She is painting a bright blue wall. To her left, the lower half of another person wearing a white and grey patterned skirt is visible. The wall has some faint, light blue painted designs near the bottom. A paint tray with blue paint is visible in the bottom right corner.

라온아띠 Project
Brgy.canan sur, Malasiqui

Canan Sur Daycare center 페인팅&책상 만들기

Malasiqui의 Canan sur에서 라온아띠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데이케어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학기가 시작되는 1월 6일까지는 대략 열흘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었다. 데이케어센터 환경 개선 작업은 크게 내부 벽 페인트칠, 책상 만들기 두 개로 나누어졌다.

페인트칠:벽의 기본 바탕색은 산뜻한 하늘색으로 정했고, 산·구름·무지개 등의 자연물, 사각형·원·삼각형 등의 도형, 풍선, 숫자 등등 어린이들의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려넣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책상:이전에 쓰던 플라스틱 책상이 너무 작은 데다 망가질 경우 보수가 어렵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새 책상은 목재를 이용해 이전보다 더 큰 사이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YMCA 자원봉사자인 Kuya Richard가 세심하게 골라오신 나무 기둥과 판자에 못질을 한 후, 하늘색 페인트까지 칠하여 총 4개의 책상을 완성하였다.

원래 이틀 정도에 걸쳐 끝을 내려 했던 작업이었으나 페인트가 모자라거나 봉사자들끼리 만나기가 여의치 않는 등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대략 5일 정도 소요되었다. 그래도 다행히 학기 시작 전에는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고, 1월 6일에는 새로워진 교실에서 새로운 책상 앞에 앉아있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었다. ^^



Alex[연]-Mother's Club 조직

나는 Barangay Canan Sur의 Mothers Club과 함께 나의 전공지식(의학지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맡았다. Mothers Club은 따로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라기보다는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의 보호자 그룹(대부분은 아동의 어머니)으로서, 아동이 수업을 듣는 동안 데이케어센터 업무를 돕거나 센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데이케어센터 바깥 그늘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

어머님들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참 고민이 많았다. 워낙 일천한 나의 경험과 지식이 부끄럽기도 했고, 나의 전공지식을 어떻게 하면 덜 딱딱하고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아는 약재 중 동남아에서 자라는 것은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나의 이 수줍음 많은 성격은 어떻게 넘어서는 것인지 등등.



첫 번째 프로그램은 데이케어센터 앞에서 진행되었다. 첫 만남이라 긴장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 앞에 섰다. 사실 도무지 무엇으로 이야기를 시작할지 감이 오지 않아 온 몸이 얼어붙었다. 때마침 옆에 있던 보경 누나가 어머님들에게 아침으로 무엇을 드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대화의 문을 열었다. 서로를 소개하고 이름을 알게 되자 본격적으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에서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나누었다. 또 마침 나와 보경 누나에게 감기 기운이 있던 터라 한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는 대표적 작물인 생강의 약리 작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도 하였다. 그러나 중간중간 아이들이 교실에서 나올 경우 부모님들이 더 이상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진행이 어려워져 첫 프로그램은 예정보다 일찍 마쳐야 했다.

두 번째 회차 때 바람가이 중심에 있는 Multipurpose Hall에서 진행되었다. 오후 3시 정각이 되자 어머님 10분 정도가 오셔서 의자를 줄맞추어 놓고 앉으셨다. 한 분은 공책과 노트까지 챙겨오셔서 나를 더욱 설레게 하셨다.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소개를 한 뒤,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한의학이란 어떤 것인지, 한의학에서 쓰는 침과 한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했다. 이어서 거창한 의료기구와 약재 없이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건강 상식 등에 대해 하나하나씩 소개를 했다. 실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터라 가장 흔한 질환들에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 지압법, 각종 요법 등을 알려드렸다. 다행히 모두들 관심있게 들어주셨고, 노트를 가져오신 분은 열심히 필기도 하셨다.

원래 1주에 2회 진행하기로 했던 프로그램이지만 한 주는 내가 편도선염이 도지는 바람에, 또 몇 번은 YMCA 프로그램, 지역 축제와 날씨가 겹치는 바람에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아직 세 번째 회차는 진행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전공서적도 뒤지고 인터넷도 뒤지고 해서 더 많은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릴 계획이다. ^.^



Aurora[보경]-Canan Sur Daycare Center 수업 보조

Aurora는 Aurora의 엄마가 선생님이로 계신 Brgy.Canan Sur Daycare Center(한국의 유치원 개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9:30-10:00, 3-5세 아이들과 수업으로 엄마를 보조한다. 그 외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때 밖에서 기다리시는 부모님들과 수다를 떨거나 수업 전후로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 놀고있다.



첫 수업 전 수업 방향에 대해 엄마와 상의했었는데 밖에서 하는 활동이 없던 터라 밖에서 하는 몸놀이와 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등 예체능 교육을 하기로하였다. 이미 Dumpsite에서 언어의 위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업 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다음 날 수업 내용을 따갈로 그어로 번역 한 후 아이들에게 그 날의 수업 내용을 따갈로그어로 말하고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서 준비한 말을 다 하면 엄마가 옆에서 자세한 설명으로 엄마가 오히려 나를 보조해주시고 있다.

밖에서 하는 활동은 활동 전 간단한 몸 풀기로 아이들의 몸에 무리가 안가도록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몸풀기에도 아이들은 곧잘 따라하고 몸 풀기만으로도 에너지 업업!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



먼저 체육 수업은 Daycare 앞마당을 뛰어다니며 동물 흉내내기, 곰 세마리 율동(따갈로그어 버전), 치킨치킨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을 하였다. "hali ka dito~(이리와~)"라는 부름에 아이들은 신나서 교실 밖으로 뛰어 나온다. 그 중 곰세마리 율동(따갈로그어 버전)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따라하였는데 곰세마리 율동 수업은 우리 가족들의 추천으로 따갈로그어 가사를 배워 수업하게 되었다. 예전에 필리핀에서 한국 드라마 풀하우스가 유행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곰세마리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 장면이 유명해져 따갈로그어로 번역되어 많이들 따라부르곤 했다고 한다. 그 후로 길을 지나가다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은 나에게 곰세마리를 불러주고 나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한다.^^

미술 수업은 Pamilya(가족)를 주제로 그림 그리기를 하였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 연필, 색연필을 잡는 것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에 서툴러 아이들의 옆에서 부모님이 함께 하였다.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Daycare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직접 돌보시는데 만약 바쁘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등이 부모님 대신 오셔서 아이들을 도와주며 수업 및 간식을 챙겨주시곤 한다.

얼마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처음 뵈었는데 내 이름을 알고 계셨다. 알고보니 우리 집 앞에 사는 아이의 할아버지였던 것이다! 그 뒤로 앞 집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가정 방문을 하고있다. 특별한 건 없다. 그냥 가서 애들 얼굴 보고 가족들이랑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다 오며 그렇게 살고 있다.



이들과 피딩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점은 한국과 비교해서 아이들 음식에도 상당히 많은 조미료를 쓴다는 것과, 요리를 할 때 위생에 많이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몇 주부들에게 따로 물어보았는데, 이곳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조미료에 대해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위생문제는, 부모들이 피딩을 준비할 때도 Marlou가 요리할 때와 같은 도구와, 같은 방법으로 조리했기 때문에 부모들조차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혹여 내가 굵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직까진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 단지 위생에 있어 감수성의 차이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생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 하에 요리했을 때의 위험성을 이들에게 설명하고 올바른 요리도구와 조리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후자가 맞고,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이들에게 자칫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 남은 기간 동안 더 고민해 봐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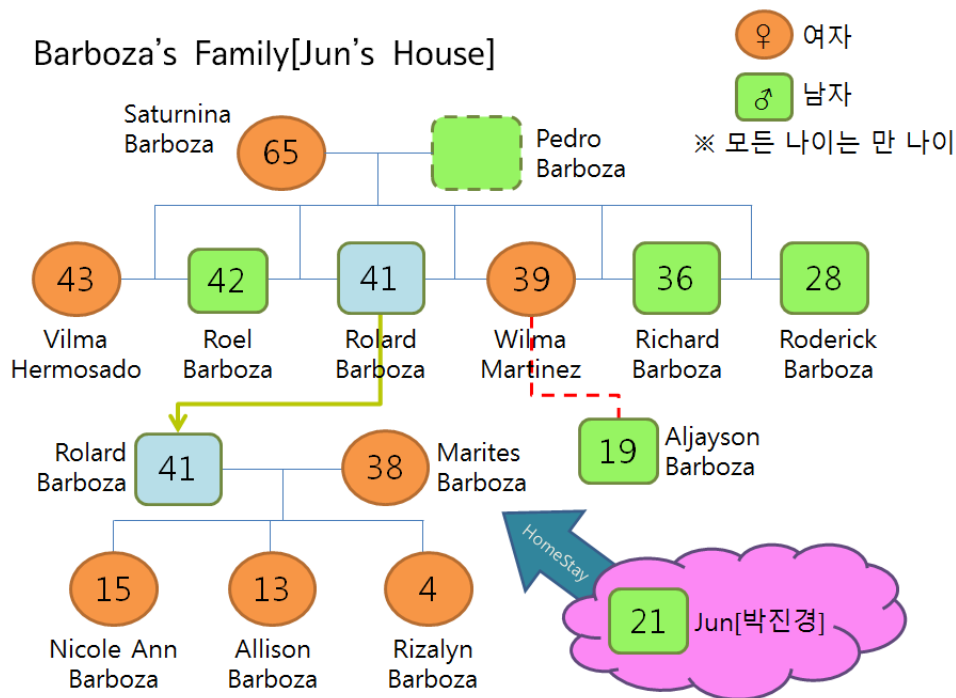
단원 별 홈스테이



Jun



Barboza's Family[Jun's House]



Barboza's Family.

-주 생업은 **농업(논)**이다.

-이 집에서는 Saturnina(우리 할머니)와 Rolard(우리 아빠)의 가족 [Marites(우리 엄마), Allison(둘째 여동생), Rizalyn(셋째 늦둥이)], Richard(우리 삼촌)이 생활하고 계신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Nicole Ann과 Aljayson은 마닐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Roderick은 마닐라에서 일을 하신다. 이 세 명은 마닐라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X-Mas와 신년만일을 하기위해 잠시 고향에 내려왔었다.

-Richard는 Saturnina(우리 할머니)의 아들로 타운 홀에서 일하신다.

특징

-우리 집은 말이 무척 없으시다. 그리고 수줍음도 많으시다.(같이 밥을 먹지 못 하실 정도로)

-무척 부지런하시다. 내가 봐온 필리핀 사람들과는 무척 다른 모습이시다.

-나에게 먹을 것을 많이 먹이게 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셨다. 배부르는데.. 계속 주신다.



내가 맡은 일

-나의 한국집도 농사를 한다. Malasiqui의 대부분의 주민들도 생업이 농사이시다. 난 이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하기로 되었다.(한국 촌놈 필리핀에서도 농사지음..ㄷㄷ) 내가 논에 따라 갔을 때에는 이미 모내기가 다 끝나있었고 펌프로 물만 주면 되는 상황이었다. 즉, 결국 난 농사일을 도울 수 없었다.

필리핀 논 특징

- 이 곳은 4~5모작을 한다. 한국보다 작물이 더 빠르게 자란다.
-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손수 작업을 하신다. 계단식 논도 가능
- 논들을 보면 어느 지역은 모내기, 추수, 지푸라기 정리 등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 이러지 못한다.) **끝!**



Pamilya Fernandez

우리 집은 요리를 잘 하시는 아빠, 동안페이스의 쿨한 엄마, 나와 동갑이지만 생일이 20일 빨라 언니하기로 한 첫째 언니 아도, 둘째는 타지에서 공부 중이어서 없고, 나와 코드가 잘 맞아 엉뚱한 장난을 치며 내 흉내내기가 특기인 셋째 남동생 밍, 조용하지만 웃길 땐 확실히 웃겨주는 막내 여동생 클링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아플 것 같은 아도의 세 딸이자 나의 딸들 자나, 자자, 젠젠 이렇게 삼대가 살고 있다. 바로 옆 집의 외할머니 댁 까지하면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이다.



처음은 visitor로 시작하였다. 가족들이 먼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korea에서 온 visitor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집에 온 후 일주일 가량은 밥먹을 때 맛있는 반찬을 한접시에 모두 담아 내 것이라고 따로 챙겨주기도 했다. 자기 전 모기장 설치와 내 텀블러에 미네랄 워터를 채워 머리맡에 놓아 주기도 했고 화장실에 물을 채우기 위해 우물 물을 펌프질이라도 할라치면 "I will be the one"이라며 손사래를 치며 못하게 하였다. 다 나를 생각해서 그런거라는건 알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visitor로 온 게 아닌데...

말라시키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모두 보냈다. 국민의 97%가 카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는 큰 명절이라 외할머니 댁에는 마닐라에서 살고 있는 삼촌 가족이 왔고 크리스마스 이브엔 미사를 드리러 갔다. 종교가 없는 나에게 미사는 처음이었는데 그것도 새벽 미사를 갔다. 새벽 두시에 일어나 밍, 클링과 30분 정도 걸어 성당에 도착했다. 성당가는 길에 이 주변에 아니아니(귀신)가 많다는 말에 조금은 무섭기도 했지만 성당에 들어가니 뭔가 편했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많은 주민들이 새벽 미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고 엄숙할 줄만 알았던 미사는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캐롤도 부르고 말씀도 들으며 진행되었다.

집에 돌아 온 뒤 한숨 자고 일어나 애기들이랑 놀다가 저녁을 먹는데 엄마 아빠가 조금만 먹으라고 하셨다. 알고보니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가족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고 하였다. TV에서 크리스마스 미사 생중계를 보며 12시 땡!하자마자 메리크리스마스!하며 서로의 축복을 빌며 우리집과 외할머니 댁이 준비한 음식을 나눠먹었다. 하나 신기했던 건 '크리스마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올해엔 눈이 올까 안올까'였는데 여기선 반팔을 입고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는 것이다. ^^



새해 또한 31일에서 1일로 넘어가는 12시에 음식을 나눠먹는 것으로 보내는데 크리스마스엔 준비한 음식을 먹기만 해서 새해엔 나도 한국 음식을 하기로 했다. 뭘 할까 하다 매운 걸 안 좋아하고 기름에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우리 가족에게 '오징어 파전'과 '참치 마요 주먹밥'을 만들기로 하였다. 아침에 다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요리를 준비하는데 한국 음식 준비는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엄마를 거들기로 했다. 엄마와 함께 'Suman'이라는 전통 음식을 만들었다. 'Suman'은 바나나 잎에 찰밥을 넣고 말아 찌는 약식과 비슷한 필리핀 전통 음식으로 엄마가 곧잘 한다고 칭찬해 주셨다. :D

저녁에 오징어 파전을 부치고 자나와 참치 마요 주먹밥을 만들고 상을 차리는데 밖에서 팡!팡! 소리가 나더니 가족들이 내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필리핀에선 폭죽을 터뜨리며 새해를 맞이한다고 작년 국내 훈련 때 가흔 단원이 가르쳐준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라니. 새해 폭죽을 보니 한 살 더 먹은 게 실감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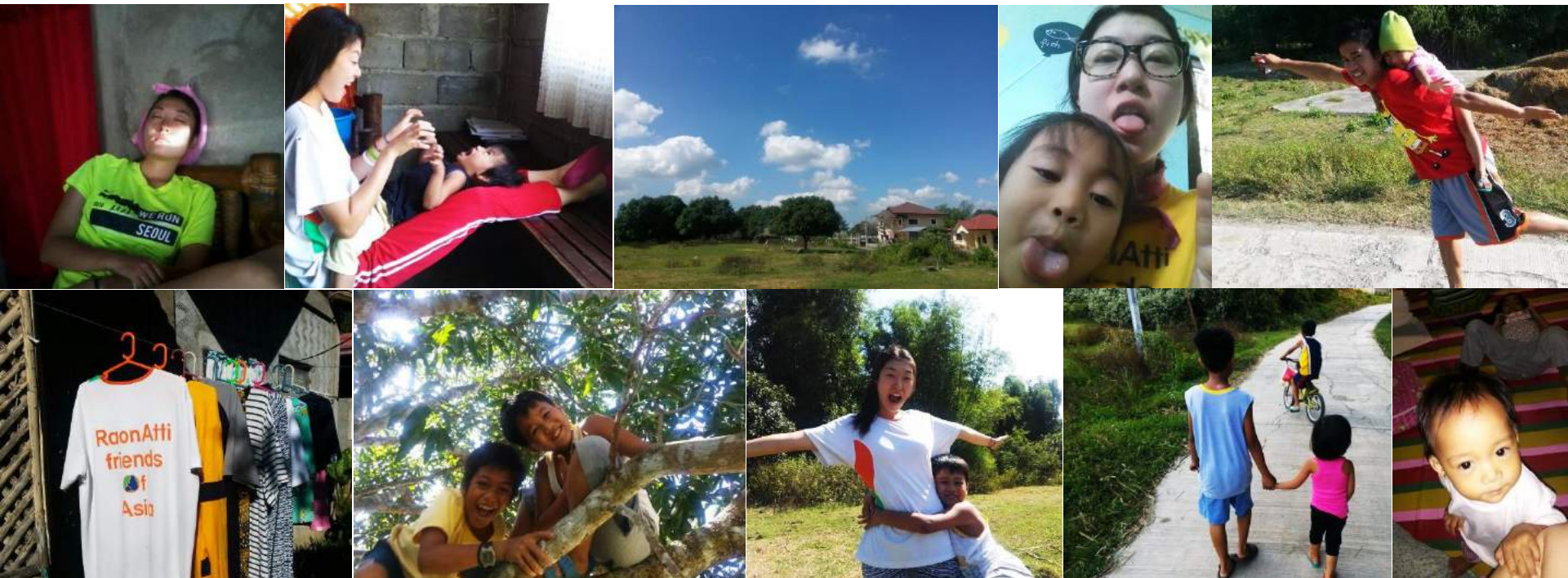


1일 아침엔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우리 집을 시작으로 동네를 돌며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렸다. 세배를 드리기 전, 세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절을 한 뒤 어르신의 손등을 내 이마에 맞대는 필리핀 전통 인사도 함께하며 새해 인사를 드렸다.

신기한 인연도 있다. 지난 9월 처음 Canan Sur를 방문했을 때 다짜고짜 내 앞에서 한국 드라마 시크릿花园의 ost를 유창한 한국말로 불러서 '낫츠'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와 사촌 지간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시는 '낫츠'의 어머니이자 나의 외숙모 안떼 령이 말씀하시기를 9월 어느 날 집에 와서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다면서 자랑 하길래 무슨 소리냐며 믿지 않으셨는데 지금 눈 앞에 있는 나를 보니 이제야 이해가 간다며 그 후로 자주 집에 초대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들을 만들어주신다. :D



Canan sur의 생활이 행복하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기, 동네 아이들과 산책하기. 아도랑 빨래하기. 등등 어느 하나 행복하지 않은 게 없다.



라운아띠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적정기술이었다. 적정기술이란 첨단 기술이기 보단 간편하지만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배려한 기술로 일방적인 보급이 아닌 사용자가 불편 또는 원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여 지역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지역의 환경, 사람, 추후 영향을 최우선으로 한다. 필리핀에 오면 마을 사람들과 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지 하고 왔는데 지난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집 안에 있는 가스렌지로 음식을 해먹고, 폭신한 침대에서 잠도 잘 잤다. 다구판에서 살면서 불편을 느껴 본 적은 없었다.

Pugaro의 Livelihood Project를 진행했을 땐 속상하기도 했다. Pugaro에 주민들을 위해 생계수단을 찾아보는 게 미션이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 그것도 한 두 시간 데이케어에서 수업만 하고 돌아오는 게 다였다. 주민들 역시 불편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Livelihood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나버렸다.

그러다 Canan Sur에 오게 되었고 여기 오기 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왔었다. Dumpsite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잠정적으로 아띠클라세를 마무리하고 왔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Dumpsite를 못 가면서 까지 꼭 와야만 했나." 그래도 다 이유가 있으니 온 거겠지 생각하고 살았다.

같이 먹고 자고 살다보니 보이더라. 불편한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가족 수도 많은데 탈수기가 없어 손으로 빨래를 짜는 게 일이고, 장작으로 음식을 해먹는데 장작 매연이 집안으로까지 들어와 가끔은 숨 쉬는 게 힘들 때도 있다.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우리 집 애기들은 다들 기관지가 안 좋다.

하지만 아직 한 달도 안 살아본 내가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건 선부르다 생각했다. 그러다 밍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넌지시 물어봤었다. 혹시 생활하면서 불편한 거 없냐고. 그때 밍 역시 장작으로 요리 할 때 매연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 힘들어 굴뚝을 만들면 좋을 거 같은데 재료도 없고 가격도 비싸서 못 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밍과 값 싼 재료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으쌰으쌰 해보기로 했는데 밍이 개학을 해 바빠져 더더졌다. ㅌ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너무 아쉽다.



얼마 전 여느 때와 같이 TV를 보면서 가족들과 수다를 떨다가 내가 언젠가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으로 Canan sur로 와서 우리 가족에게도 인사드릴 거라고 했었다.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하셨다.^.^ 덧붙여 신혼여행 말고도 언제든지 오라고 이제 Aurora도 우리는 가족이니깐! 와서 얼마든지 지내도 좋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너무 감동이었다.



5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이 배웠다. 그리고 아직 더 배울게 많다. 사랑도 많이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넘치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할 지 고민이다. Aurora라고 불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날 동안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 끝!



Dainey

홈스테이를 위해 온 짐을 싸들고 카난서에 온 날, 지금의 우리집이 앞으로 나의 집이 될 지 몰랐을 때부터 자식같은 이끌림이 있었다. Ate rose께 ako! Ako!(저요! 저요!)하며 이 집에 살고 싶다고 강력히 어필했었다. 하하. 사실 이때는 깔끔한 집 분위기에 사로잡혀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집 선정이 있던 다음 날, 그토록 원하던 이 집이 앞으로 내가 살게 될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방방 뛰며 기뻐했다. 그렇게 행복한 나의 카난서 생활기는 시작되었다.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와 보니 꼬맹이 남자아이가 있었다. 한국에서부터 항상 이런 꼬맹이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서 생긴 것이다. 이 아이는 아떼들의 조카손주인데 원래 이곳에서 아떼들과 같이 사는데, 마닐라에서 일하는 부모와 며칠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 아이와 나는 지금 엄마, 아들 사이가 되었다. 어느날 평소처럼 데이케어 갈 준비에 바쁘게 아이를 씻기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mama!라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가끔 나를 मामा라고 부른다. 카난서에서의 내 삶은 이 아이를 떼 놓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정이 많이 들어버린 녀석이다. 아이가 나를 मामा라고 부른 후부터 나의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다. 밥을 먹을 때에도 항상 내 무릎에 올라와 앉는데, 지금은 적응이 되어 이 자세로 아이 밥도 먹이고 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요령을 터득했지만, 처음에는 이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날은 하루종일 나에게 매달려 있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내어 방에서 누워 음악을 듣는데 순간 엄마들의 육아고충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보기만 해도 배부른 예쁜 아이들을 두고 왜 엄마들이 그렇게 개인 시간을 잠깐이라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진짜 엄마들 육아의 1/100도 체험하지 않은 내가 가슴 깊숙이 공감이 가더라. 라온아띠로 이곳에 와서, 내가 부모들의 육아고충까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지 상상도 못했다. 라온아띠. 참 대단한 프로그램이다. 하하하(ㄸ.ㄸ ^.^)

그리고 곧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여전히 소녀감성을 지니신 할머니는 춤도 덩실덩실 잘 추시고 항상 얼굴만 마주치면 배고프지 않냐고, 밥 먹으라고 나를 그렇게 챙기시는데, 정작 할머니는 밥을 조금밖에 드시지 않는다. 사실 지금 내가 이 집에서 쓰고 있는 방도 원래는 할머니 방이다. 2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몇 십년을 이 방에서 함께 지내시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이 방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가끔 옷장에 있는 옷만 꺼내러 들어오신다. 뭔가 슬프다. 할머니 아프시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 곳 카난에서 내가 목표한 것이 2개 있다. 정말 소소한 건데, 하나는 매일매일 아떼들, 할머니 안마해 드리기이고, 하나는 john rey가 'mahal kita(사랑해)'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매일매일이 이 곳을 떠나기 전 한번이라도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정말 쉽고 간단한 건데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건지.. 오늘 저녁에는 꼭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두번째 목표는 뭐냐하면, 존레이가 아기였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내다 보니, 물론 아떼들이 잘 보살펴 주기는 해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보다는 감정표현에 워낙 서투르다. 이것을 언제 알게 되었냐면, 분명 나를 하루종일 줄줄 쫓아다니고 얼굴 부비는 것을 보면 나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존레이, mahal kita(사랑해)'라고 말하면 'ayaw(싫어)'라고 말하거나 눈을 피하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더 많이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눈을 마주 보고 말하고 있다.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 기필코 존레이 입에서 mahal kita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갈 것이다. 하하 ☺

민아언니와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집에서 사랑받으며 무위도식하며 살아보겠느냐고. 정말 그렇다. 이 순간은 내 생애 가장 고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순간 중에 하나일 것이다. 사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덤프사이트 아이들과도 워낙 정이 많이 들고 다구판의 친구들과도 헤어지기 싫어서 말라시키에 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 또 와보니, 이곳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안 왔으면 어쩔뻔 했나 싶기도 하고 원래 두달이었던 홈스테이가 한달로 줄어든 것이 아쉽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오순도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라온아띠라는 이름으로 미숙하지만 자원활동가로서 이 곳에 온 것인데, 카난서에서의 삶은 정말 먹고 노는 것이 대부분이라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다. 이것 또한 다음 기수를 위한 관계맺기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것 치고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피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이 무위도식이라 우리에게 과분한 행복인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 없는 환경이고 나에겐 절대 오지 않을 줄 알았던 향수병이 나에게도 찾아온 것 같다. 요즘 왜 이렇게 한국 가족들과 한국 집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요즘 감기로 하도 골골대고 지냈더니 더 그런 모양이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항상 걱정해주시는 아떼들을 생각해서 으쌔으쌔 힘을 내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곳 카난서에 내 한 몸 더욱 불살라 지내다 갈란다! **끝!**



Alex



Canan Sur에서의 생활 : 한 달 가량 지내게 된 말라시키에서 나는 두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첫 2주 가량은 YMCA에서 소개해 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Ate Digna의 가정에서 지냈고(민아도 이 기간 동안 같은 집에서 지냈다), 그 이후에는 Ate Digna의 친오빠이자 Barangay Canan Sur의 캡틴이신 Dante Geslani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

Basilan Family

- Romeo : 1등 주부이신 아버지! 작년 사고로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는 주로 집에 계시며 집안 살림을 하신다. 가끔 아이같은 익살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귀여우실 수가 없다.
- Digna : 우리 어머니. Canan High School 가정선생님이시다. 아침잠 많은 나의 잠 깨우기를 항상 주저하셔서 도리어 죄송했던 기억이 많다. Maha라는 떡을 잘 만드시는데 진정 감동의 맛이었다.
- Kristelle "Kiting" 집안의 맏언니. 현재는 결혼해서 남편, 귀여운 아들과 함께 이웃에 살고 있다.
- Jessa Mae "Mayang" : Canan High School 물리선생님. 도무지 선생님이라고는 믿기 힘든 동안에다가 한 번 배운 한국어 회화는 절대 까먹지 않는 명석함. 이따금 우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때가 있는데 그 깜찍함에 다들 함박웃음을 짓는다.
- Zeus "Eus" 이따금 있는 술자리에서만 끼를 보여주는 시크남. 농구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는 대학생 청년이다.
- Kathleen "Katkat" 수줍음 많고 귀여운 막내딸. 평소엔 무뚝뚝해보여도 동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며 까르르 웃는 것을 보면 영락없는 소녀다.

Mayang의 경우 성당에 많은 또래 친구들이 있어 우리 라운아띠를 이 지역 청년들에게 소개해준 장본인이다. 마양 덕분에 다른 바랑가이에 사는 친구들, 성당의 신부님 등과도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Canan Sur의 Captain이신 Dante Geslani의 가족이다.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가족.

Geslani Family

- Dante "Dan" : 벼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 따로 집에 바를 만들어 놓으실 만큼 애주가이시기도 하다. 여유로운 웃음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눈에 다녀오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마음이 느긋해진다.
- Imelda "Emy" : 터프한 성격을 가지신 어머니 ! 요리를 너무 맛있게 잘하셔서 이 집에서 내 몸집이 계속 불고 있다.
- Keithmel "Keith" : 마닐라에서 Coast Guard로 일하고 있는 군인. 멀리 사는 관계로 4달에 한 번씩 집에 온다.
- Kirby : 해맑은 얼굴의 둘째 아들. 동생들이나 라온아띠가 시내에 나갈 때면 항상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 준다.
- Kayeanne : Geslani 집안의 고명딸. 회계를 전공하고 있는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 항상 나를 괴롭히고 놀리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 Kyme : 역시 회계를 전공하고 있는 막내아들. 말수가 별로 없는 와중에도 유머감각이 남달라 집안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주범이다.

벼농사를 지으시는 아버님을 따라 논에도 가보고, 농구를 좋아하는 아들과 함께 농구 중계도 같이 보고, 집 정원에 있는 테이블에서 가족들과 같이 술도 마시는 등 너무나 재미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Canan Sur에서의 생활은 내게 있어 처음으로 겪는 농촌 생활이었다. 콘크리트 벽으로 단절된 아파트에서 이웃의 이름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이렇게 많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게 되었다. 마을길을 걷다가 갑자기 초대받아 간식을 얻어먹은 경험, 내가 감기에 걸리자 곧바로 이웃을 수소문해서 약을 얻어다 준 우리 가족의 따뜻함 등 이웃의 소중함을 느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다. 한국에 가면 이런 기억들이 가장 그립지 않을까? Dagupan에서는 주로 일을 했던 기억이 난다면, 이 곳에서는 사람들과 일상을 함께 하고 같이 호흡했던 기억이 날 것 같다. 진정 매력 넘치는 곳이다. **끝!**





MinAh

라온아띠 마지막 한달 반, 카난에 와서 고향을 얻었다.

도시에서 태어난 나의 세대에게 '고향'이라는 말은 태어난 곳 이상의 이미지를 갖기 힘들다. 윗 세대가 전해주는 고향이라는 공간의 의미와 정서를 상상만 할 뿐이었다. 그렇게 "고향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이 어색하며, 태어난 동네라는 공간성 이상으로 나를 언제나 따듯하게 품어주는, 언제나 돌아가고픈 어느 곳이 내 고향이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곤 했다. 내가 태어난 한 동네는 살았던 아파트 건물만이 흔적으로 남았고, 자라온 지역은 이런저런 추억들만이 바쁘게 나를 스쳐갈 뿐이다. 나의 고향은 고향일까?

필리핀 생활 4개월 차, 바랑가이 Canan Sur에서 가족으로, 친구로, 아떼로, 先生님으로 한달 반을 지냈다. 곧 떠나고 나면 이곳을 나의 두번 째 고향, 혹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순수한 마음으로 보낸 한 때의 추억이 있고,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고, 나를 위한 소박한 침대와 음식이 있는 곳. 너무 예쁜 사랑을 매일 매일 담백 받았고, 많이 받아 넘치는 사랑을 꺼내어 줄 수 있었고, 언제나 돌아와도 반겨줄 사람들을 가득 얻었다.

나는 객식구, 떠날 행인이지만 이 곳에 함께 '사는' 사람이었고, 반길 수밖에 없는 자리를 받아 온 아이였지만 평범하고 작은 하루 하루를 보내는 동안 정말로 다시봐도 반가운 아이가 됐던 것 같다. 한국에 전쟁나면 가족과 다같이 오라고, 결혼하면 신혼여행 차 꼭 들르러 오라고, 언제나 오라고 이곳 사람들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한 마을을 갖는 다는 것, 상상도 못 해봤던 행복이다. Canan Sur 이야기의 작은 몇 조각을 나누려한다.

식물같은 내 얼굴에 생기를 먹여 준 Canan
생활에 감사하며.



명절

필리핀의 가장 큰 명절인 크리스마스와 새해, 그 긴 휴일이 시작됨과 함께 우리는 City 생활을 마감하고 내륙의 농촌마을 Canan Sur로 이사왔다. Dagupan 시절의 Hard Working 생활에서 흐드러진 휴일로 갑자기 뛰어 들어왔다. 나는 크리스마스도 1월 1일도 행복하고 특별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을 주는 휴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삶은 계속 고요하게 흘러가는데 달력이 바뀐다고 특별히 다른 마음 먹어야 하나, 크리스마스엔 나가서 돈 쓰는 것 밖에 할 게 없잖아! 하며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 강박을 애써 무시하려던 것이 지난 몇 해의 내 연말이었다.

필리핀의 Christmas, New Year 풍습에 따라 마을에는 매일 흥겨운 잔치가 넘치고 있었다. 예수 탄생의 기쁨과 해가 바뀌는 설레임을 머금은 마을에, 다른 지역에서 일하거나 따로 살고있는 가족들이 귀성했다. 그리고 그 곳에 뚝 떨어진 다섯명의 외국인으로 우리는 흥겨운 축제를 즐겼다. 배부르고 즐거운 첫 만남이었다. 집집마다 돌며 가족과 손님을 위해 차린 상을 밤새도록 먹고 또 먹고, 명절을 맞아 모인 가족들 틈에 끼어 신나게 즐기던 새해 밤에 나는 몸으로 깨달았다. 내가 냉대하던 연말연시는 이렇게 가족, 친구들과 모여서 행복하게 보내니 이렇게도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못지내서 빠져있던 거구나!

이렇게 뜨거운 연말 연시의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마을에 소옥 들어올 수 있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알게 되었다. 많은 친구들이 휴일이 끝남과 함께 Manila 등으로 돌아가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소박하지만 정겨웠던 Canan Norte Pasish의 크리스마스 미사와 새해가 오던 날 밤 음식 여행! 나는 정말
여 집의 문턱을 밟고 술과 음식을 즐겼다. 아침까지!

나의 호스트 가족은 작게는 두 가족이고, 크게는 정말 많다고 말해야 한다.



고요하지만 깊은 정이 넘치는 가족, 귀여운 커플 엄마 아빠.



매일 아침 7시 반 등교시간, 아름다운 Ate Es는
이른아침 아직 준비가 안되었....:)

Geslani-Basilan 가족.

마을 Daycare의 Pioneer 였고 Canan NHS의 선생님이신 엄마 Digna, 뇌졸중을 이겨내신 살림담당 고짜 아빠 Romeo, 분가한 지역정부 회계사 말 언니 Kristelle, 정말 나의 자매같은 친구가 된 Canan NHS 선생님 둘째 딸 Mayang, 대학생 셋째 아들 Zeus, 초등학생 막내 딸 Katherine이 있다. 이 가족의 집에서 첫 3주를 지냈다.

또 다른 Geslani, Ate Es의 가족.

대가족 이지만 많은 식구들이 다른 나라, 지역에 머무르고, 집안의 막내딸인 Ate Es와 Ate의 아들 초등학생 Zean, 집안 첫째 아들의 딸인 고등학생 Kees 이렇게 세 식구가 지내는 조용한 집에 내가 소음을 더하게 되었다. Geslani-Basilan 가족의 바로 옆 집이고 가족간이다.

호스트 가족



내가 사는 Compound는 Dainey, Alex가 사는 집을 포함해 수많은 가족 친척으로 이루어진 Compound다. 이 집 저 집에 들러 간식을 먹고 수다를 떨고 같이 마실을 다니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간다. 덕분에 이곳 나의 집은 두 개 이상,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언니 오빠 동생들을 얻었다. Dagupan 시절 짧은 홈스테이로 조금씩 맛 보며 부러워 했던 가족 Compound의 삶의 일원이 되었다. 가족이 모여 산다는 것 아주 깊이는 몰라도, 너무 든든한 삶의 바탕이다.



학교

Canan에서 지내면서 내가 맡은 일은 고등학교의 Journalism 반 아이들과 만나는 일이다. 마을 초입에 있는 Canan National High School은 Canan 주변 바랑가이들을 관할하는 고등학교이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함께 붙어있다. 타운으로 학교를 다니는 몇몇 아이들을 제외하고 마을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호스트 엄마와 자매가 이 학교의 선생님이다.



내 Canan 자매이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친구, Mayang.
아름다운 교실을 늘 빌려주시는 선생님
Sir. Lanī

오랫동안 발행이 멈춰있던 교지를 다시 만들기 위해 꾸려진 학생 그룹과 저널리즘에 관한 수업을 하는 것을 제안 받았다. 'Journalist 되기'를 이름으로 해 크리스마스 방학 이후 2-3주 가량의 시간동안 15여명의 학생과 Workshop을 진행했다. 호스트 가족이자 CNHS 선생님인 Mayang이 함께했다.

세상을 바라보고 발언하는 주체인 저널리스트가 되는 입문으로써 먼저 자기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고, 자기 관심사를 탐구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3주를 꾸렸다. 각 과정에서 Mayang과 나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가 같은 주제의 과제를 했다. 그리고 자기 과제를 발표한 후 서로 Comment 하는 것을 통해 서로 배우는 방식의 Workshop을 진행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포함한 주변 환경을 새롭게 감각할 수 있는 연극놀이를 했고, 내가 하고있는 사회 활동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Topic 1 : 자기 자신 알기 - 과제 1 : 자기 표현하기 / 과제 2 : 내 인생의 다섯 사람과 다섯 사건

Topic 2 : 나의 주변 다시 느끼기 - 활동 1 : 연극 놀이 / 과제 3 : 주변 사람 인터뷰 하기



Topic 3 : 자기 관심사 탐구 // Topic 4 : 사회 참여하기 - Dumpsite Project 소개 등



학교

나는 고등학교 생활을 스스로 그만두었던 이른바 탈학교 청소년이었다. 학교를 거부했던 내가 필리핀에 와 참 오랫동안, 고등학교로 돌아가 보았다.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즐거움도 많고 속에는 각자 어려움도 많고, 아픔을 꺼낸 후에는 또 웃고 춤을 추었다. 아이들의 하루 생활은 간단하다. 즐길거리도 다양한 자극도 비교하자면 부족하다고 한다. 아이들의 학창 시절은 학교, 친구, 가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같이 공부하고 노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다. 결론짓기 복잡하지만 그냥! 딱! 아름다운 학교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워크숍을 통해서 신선한 자극을 주고 받았고 서로 배웠다. 배운 것을 각자 들고 가 따로 또 같이 잘 살자고 했다.



Workshop을 함께 진행하며 도와준 나의 호스트 가족, 동갑내기 Mayang은 아직 정규 교사가 아닌 Volunteer 선생님이다. 사립학교 선생님 시절을 거친 Mayang이 공립학교 선생님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한다. Mayang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며 필리핀 사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또 수업을 진행하며 같이 겪은 어려움, 즐거움,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Mayang과 나는 참 비슷한 구석이 많고, 비슷한 태도로 살아가고, 웃기지만 몸 같은 곳에 같은 모양의 특이한 점을 가졌다. 몇 번째 전쯤 전생에 자매였을지도 모르다며, 삶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얻었다. 참 값진 시간이다.

마을

아침 7시에 일어나 식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고 7시 반에 트라이 시클을 타고 타운으로 등교하는 동생들을 배운다. 집 앞 길에 남아서 출근하고 등교하는 마을 사람들과 아침 인사를 한다. 맞은편 Dainey네 집으로가 세 Ate들을 만나고 Daycare 등원준비를 하는 John Rey와 Dainey를 놀리며 도와준다. 거기서 두번째 아침밥을 먹기도 한다. 그러고 나면 아주 꼬마들과 엄마들이 동네에 남는다. 아침운동 겸 폴짝폴짝 뛰면서 꼬마들을 거하게 놀아준다. 지칠 쯤 집에 들어와 Ate와 집에서 각자 할일을 하고 부족한 잠도 잔다. Ate와 점심을 같이 먹으며 이 때 수다 꽃이 핀다.

오후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거나 아이들을 만나고, 학교가 끝나면 Mayang과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석하거나 미사가 없는 날에는 신부님, 성당 사람들과 어울린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은 다른 집에 놀러가거나 동네 마실을 다닌다. 저녁 쯤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두번째 하루가 시작된다. 어디든 나가서 논다. 발룻도 많이 먹고.

길을 거닐으면 Ate, Kuya,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그늘에 앉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은 하루에 스무번을 마주쳐도 스무번 'Ate Minah!!!'를 외친다. 눈 맞추고, 손 잡고, 우뚝 거리며 같이 노는 작은 것에 너무나 행복해 하는 수많은 꼬마 친구들. 일주일에 두번은 마을에 잔치나 초대가 있다. 생일, 초상, 기념일, 세례, 그냥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등등, 하루가 멀게 사람들이 모여 경조사를 함께하고 밥을 먹는다.

이 할 일, 관계, 반가움으로 가득 찬 하루가 작은 한 마을에 있다.



친구

가족의 친구, 친구의 친구, 행복한 Canan 생활의 반 이상을 담당해 준, 친구들. 특히 동갑내기 친구 Mayang을 호스트 가족으로 만나면서 그녀의 너무 좋은 친구들을 모두 내 친구로 선물 받았다. 그들이 긴 시간 쌓아온 관계를 공짜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큰 복이다.





이 곳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 필리핀에 오는 것을 고민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Dagupan에서 안으로 밖으로 깨지고 터지며 외로웠던 시간들이 생각난다. 관계에 치여 불안하고, 내 안으로 도망치다 피폐해져 머물 곳 없던 바로 몇달 전까지의 내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Canan 생활의 마지막 날들에 서 있다. 멋진 친구들, 진짜 가족처럼 편안한 이 곳 가족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의 마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것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내 것이 된 이 만남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주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지난 일들이 모두 여기에 당도하려고 지나왔던 순간들이 아닌가? 하는, 많이 보던 문장의 상상이 내 기분이 되었다.

국내 훈련 때,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 하시던 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정말로 그렇냐는 의문을 던졌던 나는, 이 곳에서 함께인 것이 어떻게 행복한지, 그런데 얼마나 쉽지 않은지,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5개월짜리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통해 배웠다. 또 Canan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서 배웠다. 내 20대 역사에 새겨질 짧고 굵은 Canan의 한 달 반이 끝나간다. 아쉬움을 달랠 새 없이 곧 Dagupan 시절, 또 며칠 후에는 Philippine 시절을 떠나 보낼 것이다. 나의 스물 네살 일곱달 짜리 여름이 저물고 있다.

끝!



Maraming maraming salamat po!(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종 보고회에서 만나요! ☺